

## ‘황소가 된 동학개미’ 코스피 3000 이끈다

광주·전남 투자자, 연말 주식에 19조8815억원 투입...1년 전의 9배 사상 첫 장중 3000 돌파...개인들 ‘빚투’ 20조원 육박 우려 목소리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개미’들의 힘으로 6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000선에 닿았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주식에 쏟아 부은 돈은 19조88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배 거래대금이 뛰는 등 지역 주식열기도 뜨겁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마감했다. 7거래일간 지속된 상승 행진과 6거래일 연속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멈췄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마감한 뒤 곧바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3000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다.

코스피 3000시대의 주역은 단연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준 ‘개미’들이었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2조원 넘는 순매수에 나섰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각각 1조3742억원과 665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상승은 한숨 돌리게 됐다.

2007년 7월 첫 2000 돌파가 외국인과 기관의 몫이었다면 3000 돌파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은 지난해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코스피·코스닥 합산)은 18억1777만주로, 1년 전(3억7799만주)보다 무려 4.8배(380.9%) 뛰었다. 같은 기간 주식 거래대금은 19조8815억원이었는데, 전년보다 9.1배(809.2%) 급증했다.

지역 투자 열풍은 주가가 한 달 새 30%가량 폭락한 지난해 3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지역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월보다 각각 34.7%, 59.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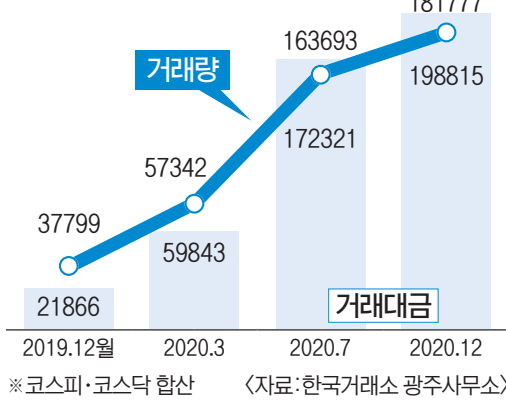
월별 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2019년 12월 2조1866억원에서 3조840억원(1월)→3조7536억원(2월)→5조9843억원(3월)→6조9028억원(4월)→5조9216억원(5월)→8억1625억원(6월)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7월 거래액은 17조2321억원으로, 전월의 2.1배(111.1%) 뛰었다. 이후 18조3529억원(8월), 17조1907억원(9월), 10조2355억원(10월), 15조6509억원(11월) 등 10조원대를 이어가다 연말엔 20조원대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예측불가 시대에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으로 옮겨지는 건 하나의 큰 흐름이지만,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5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신용융자잔고)은 전월보

■ 광주·전남 주식거래 추이  
(단위:만주·억원)



다 2700억원 증가한 19조624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9조원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며 2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광주·전남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잔액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고, 지난해 10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전국에서 2-3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경기위기를 맞아 원금 상환이 늦춰지고 있지만 2차 경제쇼크가 발생하면 ‘빚투’로 끌어 모은 주식이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2지역본부장은 “지난해는 20대 신규 계좌 비중이 전년 20%에서 27%로 크게 오르는 등 젊은층의 주식투자 관심이 눈에 띄었다”며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원동력으로 코스피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행복지역화폐’ 6월까지 1조원 발행

동네상점·전통시장서만 사용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남행복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조기 발행에 나선다. 오는 3월까지 5000억원, 6월까지 1조원 전액 발행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올해 452억원의 국·도비 지원금 전액을 시군에 조기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단체들과 구매 릴레이 운동 및 협약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수당과 연계한 정책적인 발행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사항인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대형마트와 대기업 직영매장이 아닌 동네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1인당 매월 100만원까지 구매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4인 가족의 경우 연 480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유망된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남지역 가맹점도 6만2000개소까지 늘었으며, 종이형 상품권에서 카드·모바일형까지 발행종류도 확대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주순선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행복지역화폐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들이 사·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띠 해, 소 한마리 그려보소” 6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신축년 새해를 맞아 어린이와 교사들이 투명 아크릴판에 소를 그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코로나 확진자 병상 배정 지연 자택 대기

집단감염에 일주일째 두자릿수 60여명 집에서 ... 불안감 확산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째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면서 치료병상 배정이 지연돼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 시민이 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치료를 받던 감염자의 사망자 소식까지 겹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광주 979번 확진자가 사망했다. 광주 8번째 사망자인 80대 여성은 에버그린 요양원 입소 중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이날까지 총 3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 추가 확진자도 일주일째 두자릿 수를 이어가

고 있다. 전남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현재 21명(광주 1265~1285번)이 추가됐다. 광주에선 지난달 19~28일까지 두자릿 수 확진자를 유지하다 이틀간(29일 9명, 30일 8명)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달 31일 17명을 시작으로 1일 13명, 2일 26명, 3일 74명, 4일 23명, 5일 30명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주요 발생지는 효정 요양병원 관련 83명,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73

명, 청사교회관련 61명, 의사체육동호회 관련 23명 등이다.

집단확진 사태에 따라 치료병상 배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자택 등에서 대기중인 확진 시민만 60명에 이른다. 그나마 다행은 현재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중증전담 5병상을 포함해 406개의 병상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갑자기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한다 보니 병상배정 등 일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 팔도명물 - '군산짬뽕라면' '뽕사뽕까'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O.1%  
NEW

2weeks  
고함 고함 새롭고 강력한 슈퍼레티놀  
빛이 새겨 줄 수 있는 2주간에 달한다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만 40~59세 연령 여성 대상 2019.09.16~10.17 4주간(12주) 임상연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